

조선 후기 국왕의 남한산성 행차

● 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선조 36년(1603) 2월에 선조는 남한산성이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을 왕래하는 요충지에 있으면서, 수도를 지키는 보장(保障)이 되고 주변의 여러 진영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남한산성이 가진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곳에서 항전하다가 항복을 하자, 남한산성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남한산성에 행차하여 병자호란 때 사망한 사람들의 충절을 기리고,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한 국왕들이 많이 나타났다. 남한산성에 행차한 국왕은 숙종을 비롯하여 영조, 정조, 철종, 고종 등 5명이며, 방문 시기는 1688년부터 1867년에 이른다. 이들은 여주의 영릉(寧陵)이나 광주의 인릉(仁陵)을 참배하는 길에 남한산성을 방문했다.

이하에서는 조선후기의 국왕들이 남한산성에 행차한 일지와 남한산성에서 취했던 조치들을 정리하고, 그들이 남한산성을 방문한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남한산성에 행차한 일지

● 숙종의 행차(1688)

숙종 14년(1688)에 숙종은 여주에 있는 효종의 영릉을 참배하는 길에 남한산성에 행차했다. 영릉은 원래 태조의 건원릉 부근에 조성되었지만, 현종 14년(1673)에 현종에 의해 여주로 이장되었다. 숙종은 여주로 옮겨진 영릉을 방문한 최초의 국왕이었다. 숙종의 행차는 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이었고, 남한산성에서는 26일과 29일에 머물렀다.

숙종은 26일에 창덕궁을 출발하여 남한산성에 도착했다. 한강을 건널 때 광나루에서 배를 탔으며, 광나루 북쪽 언덕과 남쪽에 있는 율목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남한산성으로 입성했다. 숙종은 27일에 벌원,

공암을 거쳐 이천에 머물렀고, 28일에 영릉에 제사지내고 이천으로 돌아왔다. 숙종은 29일에 공암, 쌍령을 거쳐 남한산성으로 돌아와 서장대에 올랐고, 30일에 광나루를 거쳐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 영조의 행차(1730)

영조 6년(1730)에 영조는 효종의 영릉을 참배하는 길에 남한산성을 방문했다. 영조 4년(1728) 무신란이 발생했을 때 여주와 이천 지역에서는 무신란에 가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그로부터 2년 후 영조가 이곳을 거쳐 영릉에 행차하려 하자, 신하들은 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영조의 행차를 반대했다. 그러나 영조는 여주로의 능행을 강행했다. 영조의 행차는 2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이었고, 남한산성에서는 25일과 28일을 머물렀다.

영조는 25일에 창덕궁을 출발하여 광나루를 건너 남한산성에 도착했다. 남한산성에서 하루를 묵은 영조는 26일에 쌍령을 거쳐 이천에서 머물렀고, 27일에 여주 영릉에 제사지내고 이천으로 돌아와 머물렀다. 영조는 28일에 남한산성으로 돌아와 서장대에 올랐고, 29일에는 광나루를 경유하여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영조의 여정은 숙종의 행차와 동일했다.

● 정조의 행차(1779)

정조 3년(1779)에 정조는 효종의 영릉을 참배하는 길에 남한산성을 방문했다. 효종이 사망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효종의 묘소를 방문한 것이다. 정조의 행차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이었고, 남한산성에서는 3일, 7일~9일을 합하여 총 4일을 머물렀다.

정조는 3일에 창덕궁을 출발하여 광나루, 울목정을 거쳐 남한산성 남문으로 입성했다. 정조는 4일에 쌍령천, 경안교를 거쳐 이천에 머물렀고, 5일에 영릉에 도착하여 제사지내고 여주에 머물렀다. 이전까지 이천으로 가서 숙박했던 여정을 하루 늦춘 결과였다. 6일에 정조는 여주에서 이천으로 이동했고, 7일에 경안역, 변전을 거쳐 남한산성 좌익문으로 입성했다. 이 날 정조는 남한산성의 지수당, 인화관(객사), 연병관에 행차했다. 8일에 정조는 연병관에서 문무과 별시를 시행하고, 승군들의 군사 훈련과 매화포의 발사 시험을 했고, 9일에 서장대에 올라 주간 훈련과 야간 훈련을 참관하고, 백성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다. 정조는 10일에 광나루, 살곶이 다리, 인명원, 흥인문을 거쳐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정조의 행차는 숙종이나 영조와 같은 코스였지만, 남한산성에 4일간이나 머물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린 것이 특징이다.

● 철종의 행차(1862)

철종 13년(1862)에 철종은 순조의 인릉을 참배하는 길에 남한산성을 방문했다. 철종 7년(1856)에 철종은 교하에 있던 인릉을 현릉의 오른편 언덕으로 이장했다. 순조가 철종의 꿈에 나타나 “지금 누워 있는 곳은 너무 뜨거우므로 다른 곳에 눕혀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철종은 인릉을 이장한 이후 거의 매년 이곳을 방문했다. 그런데 1862년은 순조와 순원왕후가 가례를 거행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철종의 행차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이었고, 이를 밤을 모두 남한산성에서 묵었다.

철종은 18일에 창덕궁을 출발하여 인릉과 현릉을 방문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이 날 철종은 주

교(舟橋)를 통해 한강을 건넜고, 용양봉저정과 승방평에서 휴식을 취했다. 철종은 인릉에 제사한 후 매착리를 거쳐 남한산성 남문으로 입성했다. 19일에 철종은 남한산성 인화관에서 문과 시험을 보였고, 서장대와 남장대에 올랐으며, 연무관에서 야간 훈련을 시행했다. 철종은 20일에 남한산성을 출발하여 용양봉저정, 주교, 승례문을 거쳐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철종의 행차는 목적지가 영릉에서 인릉으로 바뀌었고, 한강을 건널 때에 광나루에서 배를 타는 대신에 용양봉저정 앞에서 주교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 고종의 행차(1867)

고종 4년(1867)에 고종은 헌릉과 인릉을 참배하는 길에 남한산성을 방문했다. 고종의 행차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이었고, 10일과 11일을 남한산성에서 머물렀다.

고종은 9일에 창덕궁을 출발하여 주교로 한강을 건넜고, 용양봉저정에 머물면서 한강에서 수상 훈련과 야간 훈련을 거행했다. 10일에 고종은 헌릉과 인릉에 행차하여 제사를 지냈고, 율현, 매착리를 경유하여 남한산성에 입성했다. 11일에 고종은 남한산성 인화관에서 문과 시험을 보였고, 서장대와 남장대에 행차한 다음 연무관에서 야간 훈련을 거행했다. 12일에 고종은 남한산성을 출발하여 용양봉저정, 주교를 거쳐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고종의 행차는 철종과 동일했지만, 한강 가에 있는 용양봉저정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수상 훈련을 한 것이 특징이다.

3. 남한산성에서의 조치

● 온왕묘 · 현절사 제사와 유공자 포상

남한산성에 행차한 국왕은 온왕묘와 현절사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고 병자호란 때 순국한 유공자를 포상했다.

온왕묘는 온조왕을 모신 사당으로, 1624년에 남한산성을 수축한 원풍부원군 이서가 배향되어 있었다. 인조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면서 온조왕에게 제사를 지냈다. 인조는 인조 15년(1637) 1월에 이서가 사망하자 성내에 온왕묘를 세워 이서를 배향하게 했고, 2월에 온조왕의 신위를 '백제시조왕百濟始祖王'으로 정했다. 온왕묘는 온조왕의 신위가 주향이고, 이서의 신위가 배향위에 있는 사당이다.

현절사는 병자호란 때 척화신으로 청나라에 끌려가 순절한 삼학사三學士(오달제·윤집·홍익한)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숙종 14년(1688) 남한산성에 행차한 숙종은 온왕묘에 관리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남한산성 성곽을 수리한 이서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이 때 영의정 남구만은 병자호란 때 오달제와 윤집이 남한산성에서 끌려가 이곳에서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성안에 그들을 위한 사당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숙종은 현절사의 공사를 서두를 것을 명령했다. 현절사는 숙종이 남한산성에 행차한 것을 계기로 건설되었다.

영조는 삼학사의 집안에 조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영조는 홍익한과 윤집의 집

안에 면세 혜택을 내렸다. 두 집안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으므로 고인이 남긴 의복을 가지고 묘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달제의 집안에서는 고인의 의복을 태워 아내의 무덤 옆에 묻기만 했지 묘소를 조성하지는 않았다. 영조는 오달제의 분묘가 없지만 특별히 면세를 허락했다. 이후 정조, 철종, 고종도 온왕묘와 현절사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지냈다.

남한산성에 행차한 국왕들은 병자호란 때 순국한 유공자에게 제사지내고 그 후손들을 관리로 등용하기도 했다.

숙종은 병자호란 때 쌍령, 험천, 북문에서 전사한 장수와 병사들의 제사를 지내주었고, 쌍령에서 사망한 민영과 허완, 북문에서 사망한 신성립, 지여해, 서흔남의 자손들을 관리로 등용했다. 숙종은 인조를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포상했다. 숙종은 숙종 4년(1678)에 남한산성에서 인조를 모신 사람 가운데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인직(老人職)을 내린 적이 있었다. 남한산성을 방문했을 때 숙종은 이미 노인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음식물만 제공하고, 『호종록(扈從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노인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노인직을 주었다. 남한산성에서 인조와 함께 항전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조치였다.

영조는 쌍령을 지나면서 병자호란 때 패전한 장소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지내고, 이곳에서 전사한 민영과 허완의 후손들을 등용하게 했다. 민영의 후손인 민동수는 선전관이 되었고, 허완의 후손인 허집은 헌납, 허채는 금정찰방, 봉사손인 허상은 참봉에 제수되었다. 영조는 특히 민동수의 인물됨과 무예 실력에 관심을 보였다.

조선후기의 국왕들이 온왕묘와 현절사, 병자호란 때 순국한 사람들에게 제사지내고 그들의 후손을 관리로 등용한 것은 국가에서 그들의 희생을 잘 기억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 문과와 무과의 시행

국왕이 남한산성에 행차하면 현지의 유생과 무사를 대상으로 과거 시험을 시행했다.

정조는 남한산성 연병관에 직접 나가 문과와 무과를 시행했다. 이 날 문과에는 800명의 유생들이 정조가 출제한 '나라의 안전은 국왕의 덕에 있지 험한 것에 있지 않다[在德不在險]'에 대한 글을 지었다.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민태혁, 황인현, 조운대가 선발되었고, 현직 관리였던 민태혁은 당상관으로 품계가 올라갔다. 이날 무과에서는 총 15인이 선발되었다.

철종은 남한산성 인화관에서 문과 시험을 실시했다. 철종이 출제한 문제는 '9월에 미리 겨울옷을 준비한다[九月授衣]'였고, 1,020명이 응시하여 897장의 답안지가 제출되었다. 이 날의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조병목은 3차 시험, 차석인 김영수는 2차 시험에 바로 나갈 자격을 얻었고, 나머지 9명은 『규장전운(奎章全韻)』이란 책을 선물로 받았다.

고종도 남한산성 인화관에서 현지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과 시험을 실시했다. 답안지는 총 574장이 제출되었고, 수석을 차지한 이좌효는 3차 시험, 차석인 이민하 등 2명은 2차 시험에 나갈 자격을 얻었으며, 나머지 합격자는 가산점을 받거나 『규장전운』 책을 받았다. 무과는 광주유수가 별도로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종에게 보고했다.

이를 보면 국왕이 남한산성에 행차한 상황에서 무과가 실시된 것은 정조 때가 유일했다.

● 군사 훈련

국왕이 남한산성에 행차했을 때에는 군사 훈련이 실시되었다. 병자호란의 격전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남한산성의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남한산성에 행차한 국왕은 항상 서장대에 올라 주변의 형세와 산성의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은 정조로부터 시작되었다.

정조는 남한산성에서 승군의 진법과 매화포埋火砲의 위력을 확인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정조는 먼저 연병관에서 승군들이 방진과 원진을 이루는 것을 보고 이어서 매화포의 위력을 참관했다. 매화포는 연병관 앞 길의 남쪽에 매설하여 수많은 불화살이 동시에 발사되는 위력을 보였고, 정조는 남한산성의 군사 훈련에서는 매화포의 사용법을 숙련시키라고 명령했다.

다음날 정조는 서장대에 올라 주간 훈련과 야간 훈련을 실시했다. 정조는 갑옷을 갖춰 입었다. 이날 훈련의 중심은 성벽에서 적을 방어하는 절차였다. 이는 적이 100보 이내에 오면 불랑기포佛狼機砲와 조총鳥銃을 번갈아 쏘고, 50보 이내에 오면 불화살과 화살을 동시에 발사하며, 성벽 아래로 접근하면 병사들이 성벽 위에서 돌로 타격하는 방식이었다.

고종은 용양봉저정 행궁과 남한산성에서 수상 훈련과 야간 훈련을 실시했다. 수상 훈련은 서양의 이양선이 자주 출현하면서 한강 수로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수상 훈련의 중심은 전선을 운행하는 절차였다. 이는 전선을 일자로 배열한 상태에서 적선이 200보 이내에 들어오면 불랑기포와 조총, 불화살을 쏘고, 30보 이내에 접근하면 화기火器를 사용하며, 전선 가까이 접근하면 배를 직접 공격하여 전투를 벌이는 방식이었다.

고종은 남한산성에 도착한 이후 연무관에서 야간 훈련을 실시했다. 야간 훈련의 중심은 성벽을 방어하는 절차였다. 이는 적이 100보 이내에 오면 불랑기포와 조총을 번갈아 쏘고, 50보 이내에 오면 일제히 화살을 쏘며, 성벽 아래에 오면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는 방식이었다. 이를 보면 남한산성에서의 주간 훈련과 야간 훈련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백성을 위한 혜택

조선후기의 국왕들은 능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인근 백성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거나 민원 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해 주었다. 국왕의 행차는 ‘행행行幸’이라 하여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행차였기 때문이다.

숙종은 양주, 광주, 여주, 이천 네 읍의 봄철 대동미를 감면해 주고, 여주의 백성으로 70세 이상인 노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 양주는 국왕의 행차가 직접 지나간 지역은 아니지만 광나루 선착장의 노역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포함시켰고, 여주의 노인에게 혜택을 준 것은 세종과 효종의 왕릉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세 읍(광주, 이천, 여주)의 백성들에게 가을 대동미를 감면해 주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80세 이상의 노인으로 영조와 정조의 행차를 본 사람에게는 노인직 품계를 한 등급 올려주었다. 이는 숙종이나 영조와 동일한 조치였다. 정조의 특별한 조치는 남한산성에서 나타났다. 정조는 남한산성 연병관에서 산성의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물었고, 이튿날 다시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 정조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부채 문권을 모두 불사르자, 백성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국왕이 행차할 때에는 백성들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해 주었다. 영조는 여주의 영릉 입구에서 살췌이 다리까지 민원을 접수하라고 했고, 정조는 영릉 입구에서 흥인문까지 접수하라고 했다. 정조의 행차가 살췌이 다리 앞길에 이르렀을 때 11세가 된 김종효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를 유배지인 위원군에서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정조는 환궁한 후 이 요청을 들어주었다.

4. 남한산성 방문의 의의

● 국왕 정통성의 강화

숙종, 영조, 정조는 효종의 영릉을 참배하기 위해 행차했지만, 철종과 고종은 순조의 인릉을 참배하기 위해 행차했다. 행차의 목적이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왕릉을 방문하는 기회에 인근에 있던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방식이었다.

숙종, 영조, 정조는 효종으로부터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국왕이었다. 숙종은 여주로 옮겨진 효종의 능을 최초로 방문했고, 영조는 숙종의 행적을 계승하기 위해 영릉을 방문했으며, 정조는 효종 사망 120주년을 기념하여 영릉을 방문했다. 이는 효종→숙종→영조→정조에 이르는 정통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철종은 순원왕후의 명으로 순조의 아들이 되어 왕위를 계승했고, 순조와 순원왕후가 가례를 거행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순조의 인릉을 방문했다. 사도세자의 친손자인 철종은 장헌세자(사도세자)→정조→순조→철종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강화하려 했고, 사도세자의 증손자인 고종은 철종의 행적을 따라 인릉을 방문했다.

국왕의 능행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행차 중에 내려지는 조치도 선왕의 행적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조는 행차를 떠나면서 숙종과 영조의 행적을 철저히 따랐다. 그는 도성을 벗어나 동관왕묘에 들러 절을 올렸는데, 이는 숙종과 영조의 행적을 따랐기 때문이다. 정조는 남한산성에서도 효종, 숙종, 영조의 이전 행적들을 거론하며, 자신은 선왕들의 뜻과 일을 계승하여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 병자호란의 기억과 국토방위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은 외적의 침입에 패배했다는 쓰라린 기억을 상기시키는 장소가 되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한 사건을 '성하지맹城下之盟'이라 하는데,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한산성에서 이 단어를 떠올렸다. 그런데 병자호란에 대한 기억은 패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국력을 비축해 두었다가 북벌을 실현하여 청나라에 당한 억울함과 수치심을 씻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어졌다.

영조가 남한산성 서장대에 행차했을 때, 영의정 홍치중은 효종께서 북벌하러던 유업을 계승하여 내정을 충실히 하면, 비록 북벌은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조선의 국토를 방어하여 청나라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정조는 남한산성의 방어시설을 직접 살피면서 병자호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고, 조선에 평화기가 계속되면서 군사력이 현저하게 약해진 현실을 개탄했다.

우리나라의 전쟁 준비는 요즈음 더욱 허술해졌다. 백성은 복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군병은 일어나고 앉으며 전진하거나 후퇴하는 절차를 알지 못하면서, 하루 이를 세월만 보낸다. 병자호란 때의 일을 생각하면 군신 상하가 어찌 이렇게 케으를 수 있는가?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어 효종께서는 이 때문에 조정에서 탄식하셨고, 선정(송시열)도 이 때문에 상소문으로 여러 번 아뢴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땅이지만 예의를 아는 지역이므로 세상에서 ‘중화(中華)’라 불렸다. 그러나 이제 인심은 점차 안일에 익숙해지고 대의는 점차 자취를 감추어, 청나라로 보내는 예물을 예사로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중략)

더구나 이 해(효종 사망 120주년)를 당하여 효종께서 이루지 못한 뜻과 일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을 만큼 강개하고 격앙된다. 돌이켜보면 이제 백성들의 힘이 시들어 경비가 아주 없는 때이니, 어찌 반드시 먼 길의 행차를 해야 하겠는가? 그러나 기해년(1779)을 당하여 영릉에 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천리와 인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겠는가?

정조는 조선이 예의를 제대로 아는 문화국가이지만 병자호란 같은 전쟁의 재발을 막으려면 군사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 때문에 자신은 군사 훈련을 참관한다고 했다.

철종은 남한산성에서 효종의 유업을 떠올리고, 신하들은 민심의 안정과 전쟁 준비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 철종과 신하들은 서장대에서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경험한 굶욕을 기억하고, 조선인의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효종이 청나라에 복수하려 했던 노력을 떠올렸으며, 국토를 제대로 수호하려면 민심을 안정시키고 전쟁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고종이 남한산성에 행차했을 때에는 청나라의 침략을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고종은 남한산성에 도착하기 전에 한강에서 새로 제작한 전선을 이용하여 수상 훈련을 하고 새로 제작한 수뢰포의 위력을 시험했다. 이제 조선의 국토를 방위하려면, 육상과 해상에 나타나는 외적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어야 했다.

● 왕실 가족 및 공신의 우대

조선의 국왕들은 능행을 할 때 능행로 주변에 있는 왕실 가족이나 문신들의 묘소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주었다. 국왕이 남한산성을 방문한 것도 능행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조치가 있었다.

숙종은 광주에 묘소가 있던 명선 공주, 명혜 공주, 명안 공주, 숙정 공주와 영창 대군의 묘소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 숙종은 특히 명선 공주와 명혜 공주의 묘소가 행차 길에 가까이 있어 직접 방문하려 했지만, ‘군주는 사적인 묘소를 직접 방문하는 일이 없으며, 가는 길이 좁고 험하다’는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명선 공주와 명혜 공주는 바로 숙종의 누이였다. 숙종은 장인인 김만기와 민유중의 묘소에도 사람을 보내 제사를 지냈다.

정조는 영창 대군과 명선 공주, 명혜 공주, 명안 공주, 숙정 공주, 숙경 공주의 묘소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지냈다. 이들은 선조의 아들, 효종과 현종의 딸이 되는 왕실 가족이었다. 정조는 영조

의 공신인 김창집과 민진원의 사당에도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지냈다.

철종은 김조순 부부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 김조순은 순원왕후의 부친으로, 이 해는 순조와 순원왕후가 가례를 거행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고종은 태종과 세종의 아들인 양녕 대군, 효녕 대군, 평원 대군, 제안 대군, 광평 대군, 능창 대군, 의원군, 희녕군, 밀성군의 묘소에 종실의 관리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는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왕실의 외척 대신에 종실 세력을 강화하려 했던 대원군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후기의 국왕들이 왕실 가족 및 공신의 묘소에 제사를 지낸 것은 왕실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국가에서 이들의 존재와 행적을 잘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5. 맺음말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하삼도(충청, 경상, 전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요지이자 수도를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곳에는 백제 시대부터 산성이 건설되어 있었고, 인조 대에 이괄의 난과 후금의 위협이 거세지면서 현재의 산성이 축성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가 47일 동안이나 항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인조의 항전은 패배로 끝이 났고, 이후 남한산성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조선후기의 국왕들은 능행을 나섰다가 남한산성을 방문하여 병자호란 때 사망한 사람들의 충절을 기리고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숙종, 영조, 정조는 여주에 있는 효종의 영릉을 행차하는 길에 남한산성을 방문했고, 철종과 고종은 광주에 있는 순조의 인릉을 방문했다가 남한산성에 들렀다.

남한산성에 행차한 국왕들은 반드시 서장대에 올라가 산성 주변의 형세를 관찰하고,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경험한 항전과 항복, 효종이 국가의 수치를 씻으려고 추진한 북벌 운동을 떠올렸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아픔을 기억하는 장소이자,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심을 수습하고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소였다.

남한산성에 행차한 국왕들은 자신이 인조와 효종의 후손으로 선왕의 유업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는 후손으로서 당연한 도리이자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후대의 국왕들이 인조와 효종의 유업을 실천하려면 좋은 정치를 펼쳐야 했고, 이는 민심을 수습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국토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병자호란의 아픔을 간직한 남한산성은 후대의 국왕들이 선조의 유업을 완수하기 위해 좋은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거듭나게 되었다.

조선후기의 국왕들은 남한산성의 행궁, 서장대(수어장대), 남장대, 남문, 북문, 연병관(연무관), 인화관, 침과정을 직접 방문했고, 온왕묘와 현절사에는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주었다. 필자는 남한산성을 방문한 국왕들의 발길이 미쳤던 장소와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은 남한산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